

중부권

하나로마트 공사중 차량 30대 페인트피해 '나몰라라'

나주농협 책임회피 '말똥'

나주농협이 하나로마트 증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인근에 주차해둔 수십대의 차량에 페인트를 묻히는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회피, 원성을 사고 있다.

26일 나주농협(조합장 허철호)에 따르면 사업비 33억원을 들여 하나로마트 증설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페인트 하도급 업체의 실수로 인근에 주차해 있는 차량 30여대가 페인트가 묻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나주농협은 하도급 업체를 통해 10여대 가량의 차량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뒤늦게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하도급 업체의 연락 차단 일러주는 방법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나주농협 측의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도 '1개월이 지난 만큼 변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외해차량 소유자들은 "나주농협이 피관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사진에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공사현장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놨었는데도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나주농협은 현재까지 피해를 당한 차량 대수를 비롯해 배상금액 등도 정상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등 은폐하고 있으며 관련책임은 하도급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사의 경우 불과 87일 만에 완공하다 보니 공기에 쫓겨서 발생한 것인 만큼 피해 사실에 대한 유무가 확인될 경우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나주농협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배상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피해 차량의 경우 페인트를 닦아내고 코팅을 별도로 해야해 차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대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최승철기자 srchoi@



청명한 하늘 탐스러운 감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백운동마을 주민들이 26일 장대를 이용해 탐스럽게 익은 감을 따고 있다. 이 마을 감나무들은 대부분이 고목이어서 오랜 마을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나주 혁신도시 부지조성 40% 완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지 조성공사가 40%의 공정률을 보이며 사업현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731만5000㎡ 규모에 한전을 비롯한 15개 공공기관 이전 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2년 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부지 조성공사가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기관의 부지 매입도 15개 기관중 8개 기관이 계약을 마쳤다. 나머지 기관들도 연내 또는 내년 3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사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는 8개

기관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상반기중 설계 발주에 나선다.

공동택지는 전체 면적 158만㎡ 가운데 19%인 30만㎡만 분양돼 다소 낮은 수준이나 올해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3개 기관이 청사 발주를 하고 내년 3월 한전 청사가 발주되면 공동택지 분양도 활기를 띠 것으로 지원단은 기대하고 있다.

나도팔 전남도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장은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정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며 "부지매입과 청사 설계가 이뤄지면 조만간 청사 착공도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원기자 chung@

화순군, 내일부터 '풍류문화큰잔치'

화순에서 화순을 비롯해 남도의 민속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화순군은 28일부터 31일까지 한일 문화스포츠헤터와 화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화순 풍류문화큰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큰잔치에는 13개 읍·면의 민속경연과 마당놀이와 펼쳐져 화순의 문화, 역사, 전통을 선보이게 된다.

개막식에 앞서 27일 오후 6시30분부터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서 전야제로 가을음악회가 트로트 가수 장운정의 사회로 펼쳐진다.

29일에는 지난해 대상을 차지한 북면 상여소리를 비롯해 ▲충안면 우봉리 들소리 한천면 감강수월래 ▲동북면 최씨부인 전설 ▲도암면 집짓기

놀이가 공연된다.

30일에는 ▲남면 절동마을 당산제 ▲능주면 줄다리기 ▲도곡면 다산제 ▲화순읍 내리길쌈놀이 ▲동면 청사초롱 불 밝히려 공연이 펼쳐지며, 31일에는 ▲이서면 적벽 낙화놀이 ▲청풍면 보리고개 타작놀이 ▲이양면 쌍산의소 의병 구슬이가 무대에 올려진다.

부대행사로도는 한국한방약선요리 경연대회와 화순고인돌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남도민속을 발굴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제37회 전남민속예술축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화순 하니문 문화스포츠헤터와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영암 기찬랜드 '아름다운 화장실' 동상

영암군의 '기찬랜드' 화장실이 '제12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200여개소에서 응모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5개소가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됐다.

영암군 '기찬랜드' 화장실은 한국인의 정서와 어울리는 한옥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연등 천정을 도입한 것을 비롯해 화장실 내부부 조명용 전등장식으로 영암 도기박물관에서 자체 제작한 도기를 사용하고 내부에 거꾸로 교환대와 비데를 설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밤에는 건축물이 '기찬랜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경관용 조명을 설치해 운치를 더했다. 한편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식은 다음달 5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중부취재본부=이성휴기자 lsh@

장성군 관내 경로당 운영 돕는다

부식비·난방비 등 지원

장성군은 농촌노인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의 장소인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관내 등록 경로당 291개소를 대상으로 올 4분기부터 주부식비 지원을 시작, 내년 5월 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로당 주부식비를 연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10월~12월 4분기에 관내 등록경로당 291개소에 주부식비 1

억 3000여 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70인 이하 경로당에는 월 15만원, 70인 이상 경로당은 월 20만원이다.

군은 지난 5월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주부식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 이를 2회 추경에 반영해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군은 지난달에는 등록 경로당 미비로 등록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관내 미등록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월 6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7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흥 생활도로 상습정체 사라지나

4개구간 양면 주·정차선 없는 일방통행 시행

그동안 극심한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아온 장흥읍 생활도로가 경찰의 새로운 일방통행 방식 도입으로 주·정차난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장흥군과 장흥경찰에 따르면 다음달 20일경부터 만성적인 주·정차 구간인 장흥읍 생활도로 4개구간(800여m)에 대해 양면에 주·정차선 이 없는 방식의 일방통행을 시행한

다. 군과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이 구간에 대해 양면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와 함께 경계블럭을 설치해 일방통행을 시행해 왔으나, 되려 경계블럭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말았다.

더욱이 이들 구간의 노면표시는 합법적인 주·정차 구역으로 인식해 개

인전용 또는 장기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상가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은 이 구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구역이 아닌 일시 주·정차 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아예 두지 않고 아울러 경계블럭도 전면 철거해 상가 주민들과 분쟁 소지를 막기로 했다.

한편 '도로관리규'제도개선을 둘러싸고 일선 지자체들과 경찰간에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정차 시설물 예산지원은 지자체가, 이에 대한 시설설치 및 사후관리는 경찰이 맡고 있어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천관산으로 국화기행 떠나요"

장흥군, 29일부터 '국화 페스티벌'

장흥군은 29일부터 10일 동안 관산을 천관산 일원에서 '제2회 전남국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난해 장흥읍 탐진강 둔치에서 제1회 행사를 치렀던 장흥군은 올해에는 관산을 천관산 입구에서 같은 기간 열리는 '2010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장흥군은 국화 페스티벌을 통해 정남진 특효시장, 판매수 우드랜드, 천관산 역사 등 지역 관광자원과 통합의학박람회의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아우르는 복합유양 관광

지로서의 이미지를 알릴 방침이다.

3만여평의 감국단지를 배경으로 1만6000㎡의 부지에 마련한 행사장에는 국화 테마파크를 꾸미고 대형 한우 조형물과 버섯 공간을 조성해 포토존을 구성했다.

600㎡ 규모의 주 전시관에는 다문대각, 입국, 분재 등 다양한 국화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100여점의 국화꽃병을 이용해 미로와 산책로를 마련하는 등 장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ales and legal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Taeyang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including a large commercial building and residential uni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and sale, highlighting a large plot of 4,000 pyeong in a prime location near a highway, with a price of 13,500 pyeo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premium apartment complex, offering high-quality living spaces with modern amenities and a prime location.